

탈진실 현상과 벤야민의 번역론*

방교영**

【 차례 】

- I. 서론
- II. 지시대상을 거부한 기표와 기의만의 독립된 기호
- III. 벤야민의 공헌
- I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탈진실의 현실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언어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했다. 탈진실의 언어행위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난 40년 동안 유포해 왔던 쾌락적 가벼움과 소비주의 그리고 차이의 철학에 근거한 언어행위의 결과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배경에 따라 이 언어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것은 벤야민의 번역론이다.

벤야민은 독일 바이마르 시대를 살았으며 그 시대가 지녔던 개인주의와 극단적 자유주의의 특성을 비판했다. 이 데카당스한 특성은 언어의 지시대상을 형이상학적으로만 이해했던 196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언어-기호론의 일반경향과 유사하다. 특히 시적 언어생산이 그런 것이다.

이 글은 언어의 본래적 기능은 뜻의 소통이지 시적 표현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벤야민의 번역론을 소개한다. 벤야민은 시적이든 산문적이든 언어의 생산성을 강조하면서도 언어의 보편적인 의미의 지평을 버리지 않았다. 이 연구는 그가 순수언어라 불렀던 보편적인 의미의 지평이 위치하는 곳은 표현도 뜻도 아닌 의미의 규범적 층위라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외대 연구지원으로 작성되었음. 논문은 2014년 5월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 개최 ‘정치적 정당성 언어와 번역의 문제’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 발전시킨 것임.

**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구조 기호학의 전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레마스의 의미의 기초 구조와 비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시적 언어생산은 데카당스한 문화의 표현이며 의미론적 차원을 끌고 오지 않으면 우리 시대의 소통은 그 부패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열쇠어 : 발터 벤야민, 기호-언어론, 번역, 포스트모더니즘, 구조기호학

I. 서론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동시대를 살았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크시즘이나 자신 스스로 일상의 삶을 살았던 유대 공동체의 현실적 관심으로부터도 떨어져 독자적인 정신세계를 이끌었다. 그는 마르크시즘이 현실적 관점이라 했던 사적 유물론을 거부했고, 유대공동체의 반자연주의적 경향도 거부했다. 그는 진보적인 관점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시대가, 지나간 어떤 특정 시대와 관련을 맺게 되는 상황”¹⁾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역사에 따르기 보다는 역사를 점검하는 일을 소중히 했다.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기술하면서 그것을 현재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동안, 그는 현재의 상황을 역사의 어떤 시점에 던져 비교하고 점검함으로써 역사의 진보라든가 발전이라는 직선적인 사고에 제동을 걸어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당대 대중이 겪어 왔던 데카당스의 문화, 산업 기술의 문제, 정치적 변혁에 대하여 그 어떤 이론가들보다도 보다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정치적 변혁에 대한 판단을 예로 든다면 그는 “파시즘이 승산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반대자들이 진보라는 이름을 하나의 역사적 규범으로 삼아 이를 들고 파시즘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이다”²⁾라 했다. 즉 파시즘에 맞서 파시즘을 주창하기 때문에

1) Benjamin, W., 반성완 역, 역사철학 테제,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355쪽.

2) 앞의 책, 347쪽.

파시즘이 승리할 것이라 예견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의 진보를 주장했던 러시아 볼셰비즘의 파시즘적 변화를 언급하는 것인 동시에 1990년대 진보와 혁신의 이름으로 기업 전제정(Corporatocracy)의 문화를 이끌었던 네오콘에 대한 진단과 유사한 것이다.³⁾

벤야민의 이러한 해안은 기호-언어에 대한 영역에까지 넓혀져 있다. 그는 언어의 자의성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의 자연적 동기에 집중하지도 않았다. 변증법적 논리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언어의 영역에서 의견을 정확하게 반반씩 나누어 토론하고 갈등하면 어떤 변증법적 해결책을 낼 것이라 믿지 않았다. 차라리 언어-기호의 활용자에게 무한한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과제)을 주어 제 스스로 언어의 보편적인 지평으로 다가서기를 원했다. 그것이 그의 ‘번역가의 과제’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다.⁴⁾

오늘날 구성주의의 공학논리가 대중을 휩쓸고 있다. 음식도 인공으로 만들 수 있고 성도 만들 수 있다는 생명 및 인간공학, 뇌의 메커니즘을 기계의 그것과 비교하여 대체하려는 인공지능이 힘을 확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실도 만들고 진실도 만들 수 있는 미디어의 세계처럼 탈진실의 현상도 나타나 있다. 벤야민처럼 당대의 시대정신에 따라가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면 회의 할 부분이 많은 시대이다.

이 글은 오늘날의 사회 구성주의적 논리를 소개하고, 이를 기호-언어학적으로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검증한다.(II 장) 연이어 담론이 현실을 구성한다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완벽하게 다른 입장을 지닌 벤야민의 번역론을 통하여 기호학의 구조적 원리와 의미를 다시 도입하기를 권유한다.(III 장) 결론으로 구조적 기호의 탐구를 통하여 탈진실의 현상을 극복할 가능성을 살핀다.(IV 장)

3) Lasch, C., *The Revolt of the Elites and the Betrayal of Democrac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5.

4) Benjamin, W., 번역가의 과제, 앞의 책, 316쪽.

II. 지시대상을 거부한 기표와 기의만의 독립된 기호

1. 탈진실의 현실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 말, ‘탈진실’(Post-truth)을 당해 핵심 단어로 선정했다. 형용사로 쓰이는 이 단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객관적 사실이 감성과 개인적 신념보다 덜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 관계하거나 혹은 그런 환경을 뜻하는 것”⁵⁾

개인의 기분과 고집에 따라 진실과 거짓을 선택하는 현상으로, 개인의 기분만 나쁘지 않으면 눈앞의 현상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 반면, 명백한 사실이나 진실이라도 감성이나 생각과 어긋나면 거짓이라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대중의 환경을 뜻한다. 사회학적으로 검증이나 논증되지 않았지만 몇 학자들은 탈진실 현상의 발생 원인을 유비쿼터스적 미디어와 정보과잉의 환경에서 찾는다. 즉 미디어 및 유비쿼터스 기술에 의해 사람들이 주머니 안에 엄청난 정보를 넣고 다니게 되었는데, 이 정보 네트워크를 자신의 마음대로 활용하다가 결국 정보를 통해 현실을 재단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⁶⁾ 현대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영역인 정치권에서는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에 맞지 않으면 억지를 부려 거부하거나, 거짓이라 하더라도 목적에 맞으면 조작하여 이용하는 탈진실의 정치(Post Truth Politics)를 말하기도 한다.⁷⁾

물론 잘 알려진 인지부조화 현상이 보여주듯이, 보통 사람들은 믿기

5) Retrieved from <http://en.oxforddictionaries.com/word-of-the-year/word-of-the-year-2016>; Flood, A., ‘Post-truth’ named word of the year by Oxford Dictionaries, *The Guardian*, Nov. 15 2016.

6) Viner, K., How technology disrupted the truth, *The Guardian*, Jul. 12 2016.

7) Krugman, P., The Post Truth Campaign, *The New York Times*, Dec. 22 2011; M. Deacon, In a world of post-truth politics, Andrea Leadsom will make the perfect PM, *The Daily Telegraph*, Jul. 9 2016.

어려운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인지와 이해의 경향을 지녔다. 그러나 탈진실의 현상은 정상적인 인지나 이해와 깊은 관계가 없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믿으려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능동적인 욕망이며 감성을 행위의 주요동기로 가진다.⁸⁾ 더 나아가 원하는 효과를 위해 사실관계도 조작하는데 그 조작을 스스로 사실이라 믿고자 한다는 점에서 인간심리의 전통경향과 크게 다른 것이다. 작금의 ‘가짜 뉴스’ 또한 유사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런 태도를 역사적으로 살핀다면 1640년부터 1661년까지 22,000 가지 이상의 정치 팸플릿을 통해 정치환경을 조작하여 영국혁명을 일구어 냈던 ‘팸플렛 전쟁’(Pamphlet wars)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⁹⁾ 팸플렛 전쟁은 현실에 대한 정치적 왜곡뿐만 아니라 영국의 해당 지방어만 전격 사용함으로써 지역적 충돌도 만들어 내었다. 이와 유사한 언어전쟁은 이내 18세기 말 영국과 미국의 7년 전쟁에서도 동일한 양태로 나타났다.¹⁰⁾ 팸플렛 전쟁과 같은 왜곡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난 때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의 냉전시대라 볼 수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전 세계는 흑백논리의 거짓뿐만 아니라 최소한 영어와 러시아어 양쪽의 언어장벽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미국과 소련이 세상의 의견을 반반씩 나누어 통제했다. 정치외교, 경제사회의 상호보완적인 현실들이 ‘만날 수 없는’ 상극이 되어갔다.¹¹⁾

-
- 8) 실은 소비자학계나 예능계는 이와 유사한 현상을 감성(sentiment) 커뮤니케이션이라 불러왔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나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개인 감성이나 주변 대중의 분위기에 따라 사물의 진위를 판단하고 욕망하는 현상으로, 업계는 이를 단지 소비시장을 형성하는 감정의 흐름과 잠재성으로서만 분석해 왔다. R. Peterson, *Trading on Sentiment: The Power of Minds Over Markets*, New York: John Wiley & Sons, 2016.
- 9) Winkelman, C. L., *The discourse of conflict and resistance: Elizabeth Cellier and the seventeenth-century pamphlet wars*.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92.
- 10) Holston, J., *Holston Pamphlet Wars: Prose in the English Revolution*, London: Routledge, 2013, p. 15.
- 11) 사례로서, 서구의 대형 미디어와 대학교육이 왜곡한 소련의 현실에 대한 기술은 Mezinski B., 방교영 역, 『러시아와 그 적들 그리고 거짓말』,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1.

동시에 전자 미디어가 끊임없이 발전했다. 혼자 아는 줄 알았던 사실이 길거리를 나가보면 남들도 모두 아는 현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그 정보가 거짓인지 아닌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같이 믿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청취율과 시청율로 살아가는 라디오나 TV에서 제공한 정보는 언제나 다수결로 우위였다. 미디어의 정보가 자연발생적인 것들이라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왜곡이 만연하는 환경에서 다수결적 우위의 정보는 프로파간다일 수밖에 없다. 권력이 통제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비판하는 소수 지식인에 대한 권력과 시민의 비난과 무시도 다수결로 우위였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일단 정치적으로 거부되었다. 결국 교육이나 언론 내부조직마저 다수의 의견에 굴복했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같은 말이 광고문구로 나올 만큼 자발적인 종속의 정신이 지배했다. 이것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벌어진 냉전의 현상이었다. 그 사이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왜곡되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곳곳에 현실의 가면을 쓰고 돌아다녔고, 그 가면이 또한 세계 대학과 실생활을 뒤덮었다.¹²⁾

더 중요한 것은 냉전시대가 만든 정치적 검열과 시민의 자발적인 담론의 규범화(Normalization)의 결과이다. 현실이 말로만 구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대중문화가 그것이다. 이 문화는 1920년대, 철학을 위해 언어를 먼저 점검하자는 언어학적 전환(Linguistic turn)과 유사한 문화를 다시 끌어 왔다. 언어현상을 점검함으로써 문화와 더 나아가 현실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이다. 이런 노력이 성공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현실과 언어의 침투관계를 주장하는 이런 문화가 소비사회로 넘어가는

12)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와 공산권의 대형 미디어는 그 자체가 이미 정치화되어 있었다. Starr, P., *The Creation of the Media: Political Origins of Modern Communications*. New York: Basic Books, 2004; 서방세계와 공산권의 정보전쟁에 대한 사례적 기술은 Mattelard, A., 박종수 역, 『커뮤니케이션-전쟁, 진보, 문화』, 한울, 1999, 161~190쪽.

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즉 현실이 곧 언어이며 언어를 생산함으로써 현실을 개혁한다는 생산성(productivity)의 주장이다. 언어를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하는 제품이자 상품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의식주 제품들처럼 언어 또한 물질적인 자극물로 보는 언어점열과 시장주의의 결과이다. TV나 녹음기, 비디오 같은 전자미디어 기술은 이런 언어를 대량생산하고 소비시키는 생산수단이다. 언어 소비자들은 또한 “자기들 집에서 문화적 기술 장치를 들고 문화를 가정에서 소비”했으며 이른 바 “문화의 민주화 “¹³⁾를 이루었다. 긴 시간 동안 경험해야 할 현실을 집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즉 언어가 현실이 되어 갔다.

이런 현실효과에 대하여 페리(Luc Ferry)는 당시, 현실을 언어로 해체 시킨 만큼 자아도 해체 시켰다고 밝히고 있다.¹⁴⁾ 시장 속에서 제품을 고르고 사용하듯이 언어를 사용하려면 자아가 있어야 하는데 언어에 의해 자아가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브랜드나 남의 선호도에 따라 물건을 고르고 소비하듯이, 언어 또한 그렇게 자아를 좌지우지 하는 행동자(agent)가 되는 것이다.

2. 이론적 접근

잘 알려져 있듯이, 소쉬르는 음성 이미지라 불리는 언어 표현과 그 표현이 품는 개념 즉 내용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다고 했다. 계약관계는 당연하지만 자연적인 동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과 다른 이가 둘 만의 약속을 통해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언어는 자의적이라는 결론이 이르게 된다.

“언어기호는 자의적이다. “누나”라고 하는 개념은 /누나/라고 발음되는

13) Mattelard, A., 앞의 책, 288쪽.

14) Ferry L, L. & Renaut, A., 『68사상과 현대프랑스 철학』, 인간사랑, 1995, 77~122쪽.

기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기표는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와 다른 국어의 차이가 이를 증명해 주는데, “소고기”라는 개념은 어떤 국어에서는 B-"o-f, 어떤 국어에서는 O-k-s 라고 기표되는 것이다.... 국어는 전 시대 것을 이어받은 것이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떤 시대에 이름이 사물에 주어지면서, 음성이미지와 개념사이에서 벌어지는 계약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¹⁵⁾

음성 이미지와 개념(내용) 사이의 계약관계는 인간 공동체에서 소통되는 언어를 사회계약적 논리로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같이 단지 가설인데,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국가제도를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즉 사회에 일괄 적용되는 단일제도(Institution)를 지지하기 위해 추상적인 차원에서 설정한 것이다. 계약은 당연히 구성원 사이에서만 자의적이 된다. 반면 바르트가 보는 이 같은 자의성은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이다.

“어떤 체계가 자의적일 경우는 기호들이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이다.”¹⁶⁾

사회계약적 언어이든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언어이든 혹은, 계약하여 강제하든 강제되어 계약을 위장하든 표현과 내용 사이의 관계는 자연적 동기가 없다는 것이 소쉬르와 바르트가 언어를 바라보는 공통점이다. 자연스런 동기가 없음에도 자연스러운 듯이 말을 하고 듣는 것이 또한 언어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일방적 강제는 잘 지켜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소쉬르와 바르트의 언어개념에는 지시대상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누군가 아버지라 표현했다면 어떤 아버지를 말하는지 부가 설명을 해야

15) de Saussure, F., 『일반언어학강의』, 김현권 역, 서울: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 138쪽. 소쉬르는 불어와 영어의 비교사례를 들어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했지만, 실은 일개 언어체계 속의 표현과 내용의 자의성을 손쉽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16) 신항식,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 문학과 경계, 2003, 48쪽.

한다. 그러나 최소한 이론적 차원에서 소쉬르와 바르트는 지시대상(실제 아버지의 존재)을 이미 기호내용 안으로 녹여 버리는 바람에 표현을 통해 지시대상을 실증하는 경험주의적 태도를 무시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경험주의자들이 소쉬르의 언어학에 기대어 기호의 연구를 진행하는 기호학을 과학이라기보다는 문학이나 미학이라고 말해 왔던 것이다.¹⁷⁾

지시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표현과 내용만의 체계를 따지는 것이 근대 언어학이라면 근대 언어학은 언어학적 체계를 현실적으로 지탱해 왔던 지시대상의 역사와 서로 독립한 것이 된다. 즉 사람의 신체에 맞추어 만들어 진 것이 옷인데, 신체를 연구하는 것은 의학이지만 옷만 연구하는 것은 의복학이니 신체와 유리된 의복학을 연구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학적 정당성은 보장된다.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가 소통되는 시간의 단면을 잘라서 언어의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 공시 언어학이다. 마치 신체학과 의복학의 관계와 같다.

“공시언어학은 동일 집단 의식이 인지하는 바대로 공존하면서 체계를 이루는 언어사항들을 연결하는 논리적이고 심리적인 관계를 다룰 것이다. 통시언어학은 이와 반대로 동일 집단 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며, 따라서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서로 대치되는 계기적 언어 사항들을 연결하는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¹⁸⁾

이런 접근방법은 학문적 전문성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언어와 소통의 본질인 의미교환을 따지는 데에는 그리 유용한 것이 아니다. 즉 언어체계를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언어를 실제 활용하는 사람들의 언어학으로 보기에는 반쪽짜리가 된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이런 공시언어학적 자세를 가지고 화용론 혹은 언어활용법

17) Holbrook, H. M., The Study of Sign in Consumer Esthetics, Umiker-Sebeok J.(ed), *Marketing and Semiotics*, Berlin, New York, Amsterdam: Mouton de Gruyter, 1987, pp. 85~86.

18) de Saussure, F., 앞의 책, 203쪽.

(performative linguistics)을 다룬다면 이는 위험한 결과를 내게 된다. 자신이 쓰는 기호 안에 이미 개념이든 실제이든 지시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신이 하는 말은 모두 근거가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쓰는 기호에는 지시대상이 없으니 어차피 내 말이나 네 말이나 진실에 다가가기는 어렵다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 후자의 자세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었다.

데리다는 지시대상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의미에 대한 기대마저도 단지 흔적이라 했다. 표현은 감각적으로 명료하지만 내용은 명료하지 않고 여러 가지라서 하나의 표현에 하나의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언어관을 제시한다.

“흔적이야말로 의미의 절대적인 원천이다. 형이상학적 개념으로는 이를 기술할 수 없다... 내용에 형이상학이 없다면 이는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어가게 한다.”¹⁹⁾

지시대상을 지지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 치부하고, 표현에 남겨져 있는 의미의 흔적이 또 다른 의미를 만드는데 있어 원천이라는 것이다. 표현과 내용 사이에는 접합점이 없고 흔적만 남아 있는데다가 내용의 범위를 형이상학적으로 보지 말고 형이하학적으로 보면 표현은 무한대로 늘어갈 수 있다. 지시대상을 무시하고 의미의 흔적을 의미생산의 원천으로 삼는다면, 뻔한 결과를 낸다. ‘그래’(Ok!)라는 표현이 가진 /허용/의 실제와 내용을 점점 무시하고 결국 그래, 그러, 구려, 구리, 구름, 구루와 같은 유사발성의 표현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게 된다. 데리다의 지적처럼, 지시대상과 내용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어가는” 운동인데 의미의 정체성이 없으니만큼 개인의 의도대로 끊임없이 표현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말을 설명하면 할수록 개인적인 의미는 만들어질지 모르나

19) Derrida, J., *Of Grammatology*, New York: Johns Hopkins Univ. Press, 1976, p. 65, p. 288.

지시대상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것이다.

먼저, 의미의 흔적을 찾아 의미를 끊임없이 만들어간 예를 들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있다. 그의 아버지(father)는 아버지 이외의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왕, 신부, 교회, 대통령 등 여러 지시대상을 품을 수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가정 내의 아버지이고 그의 생애 마지막 저술인 ‘인간모세와 유일신교’에서의 아버지는 신이거나 모세이다.²⁰⁾ 이런 이유로 프로이트는 ‘아버지’라는 표현 하나만 가지고 가정 내 아버지와 신을 동일시하여 정신분석학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부터 출발한 아버지의 용어는 점점 은유화되어 1960년대의 가부장주의, 데리다의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라는 서구의 전통 전부를 상징하는 거대한 계보학으로 성립되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²¹⁾ 정신분석학 이론이 만들어진지 벌써 백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그 논리에 의심을 품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프로이트 개인의 논리적 비약과정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의미의 흔적을 현실 속에서 찾지 않고 다른 언어로 지나치게 유추하고 해석한 역사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의미의 흔적을 찾아 논리를 재구성하거나 재맥락화하는 정신분석학의 논리과정은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에 와서 정지, 재출발 된다. 여기서는 표현만의 세계가 강조된다. 그는 지시대상에 다가가지 말고 그 전에 언어의 심연으로 가자고 했다. 언술작용(enunciation)이나 표현작용(signifiante)라는 화자의 의도와 욕망 혹은 문장구성을 위한 에너지만을 강조했다. 이것을 언어의 생산성이라 했다.²²⁾ 크리스테바가 만들지는 않았지

20) Freud, S., 종교의 기원, 『프로이트 전집』 13권, 이윤기 역, 2013, 366쪽.

21) 지시대상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표현을 통해 내용을 넓혀왔던 사례로서 리퀘르(Paul Ricœur)는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를 든다. Ricœur, P., *Freud and Philosophy: An Essay on Interpretation*, MA: Yale Univ. Press, 1970, pp. 32~36. 언어를 끝없이 은유화함으로써 결국 출발의 의미와 거의 상관이 없는 논리로까지 비약하는 언어의 확장성에 대한 비판은 신항식, 「초국적 기업의 문화로서 포스트모더니즘」,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 49, 한국 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6, 88~94쪽.

만 거의 전적으로 사용한 표현작용이라는 단어는 실은 의미작용(significance, signification)의 정신분석학적 개념이다. 예를 들면, 훈남은 이미 존재하는 기호(따뜻한 남자)를 다시 의미화한 것이다. 즉 의미작용이다. 의미작용인 훈남이 다른 변형과정(따남, 뜻남 등)을 예견할 때 표현작용이 된다. 표현작용에는 따라서 뜻은 없지만 이리 저리 다시 변할 표현만의 교체가능성(intertextuality)이 있다. 문장을 통해 예를 든다면, 의미작용은 남동생이 누나에게 용돈을 달라면서 “형님! 용돈 좀 주십시오”라 말할 때 조폭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성과 보상의 개념을 전달하는 과정을 뜻한다. 여기에는 의미의 어떤 흔적이 있으며 표현을 발전시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작용은 의미의 흔적을 무시하며 따라서 뜻을 전달하지 않는다. 의미작용에서 의미를 빼버리고 표현만 만드는 과정(process, performance)이다. “눈하! 돼지(돈) 쥐”의 경우와 같다. 돈 달라는 표현을 최소한으로나마 은유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표현으로만 꾸며서 만든 것이다. 구리시에 왔더니 음식 맛이 구리다는 식의 표현이다. 대다수의 패러디, 말장난이 이와 같은 표현작용인데 이는 언어의 의미를 생산하지 않고 단지 표현을 소비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언어 문화이다.

의미의 흔적을 재맥락화해서 흔적을 지워내거나 논리 없이 내용을 재구성시키는 작용의 예라면 여성주의의 젠더이론(Gender theories)이 있다. 이 이론은 명확하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문화로부터 유발되었는데²³⁾ 사용하는 용어, 양성(gender)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존 단어를 사회의 영역에서 재맥락화 시켰지만 의미의 흔적이 명료하지 않은 의미작용이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성)과 평등의 조합어인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게 되는데 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두 표

22) Kristeva, J.,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4.

23) Fox-Genovese, E., *Feminism Without Illusions: A Critique of Individualism*,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p. 4.

24) Butler, J.,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문학과 지성사. 2015, 73~75쪽.

현을 서로 병치시켜 규범화시키는 표현작용이다. 마지막으로 성전환(queer)은 양성을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를 서로를 교체하는(interchangeable) 상호텍스트성이다. 즉 의미의 혼탁도 명료하지 않은 표현에 다른 표현을 연결시키고 이를 다시 새로운 단어로 재사용하는 표현작용의 사례인 것이다.²⁵⁾ 양성이론이 만들어진지 벌써 25년이 넘어감에도 용어규정마저도 아직 불분명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실로 청자는 실제 사물과 화자의 개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화자의 말만 들어서는 알 도리가 없다. 언어는 지시대상의 존재를 따로 떼어 놓고는 올바른 소통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활용하고 소통하는 언어의 심연이 과연 고독한 개인의 심연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것이 지시대상과 관계가 있다고 볼 사람은 없다. 옷의 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의복학을 바라보면 이는 신체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의 재질만 연구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언어의 생산에 대한 정신분석학이거나 심리학적 노력은 크리스테바가 말했듯이, ‘시적 언어’를 만들어 간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상징인 언어를 계속 바꾸어” 치는 작업은 언어의 표현과 내용의 관계를 더욱 더 개인의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한다.²⁶⁾ 지시대상의 유무를 벗어나 최소한 의미를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놀랐어’ 혹은 ‘무서워요’의 기호가 ‘후덜덜’이라는 소아적 기호가 되고, 더 나아가 이제 ‘ㅎ ㄷ ㄷ’의 기호가 되는데 이는 언어의 경제성과 상관없는 ‘우리 끼리만의 언어’로 자리를 잡는다. 언어의 보편적 소통성의 특징이 점점 개인화 되어 가는 것이다. 언어가 지시대상과의 관계를 끊고 난 뒤 벌어진 결과는 이처럼 언어의 시적 생산성보다 패러디와 외제어의 난무로 결론이 난 오늘날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25) 앞의 책, 양성으로부터 퀴어이론까지의 정신분석학적 설명은 287~304쪽, 정치학적 설명은 345~356쪽.

26) Kristeva, J., *ibid.*, pp. 62~67.

이처럼 지시대상을 무시하거나 일부러 비켜 나가면서 표현과 내용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것은 언어가 지닌 의미의 비중마저 ‘흔적이다’라고 말할 만큼 떨어내는 일이 된다. 즉 표현에 따라 붙는 지시대상의 방해를 없애고 화자가 의도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소통하는 것이다. 결국 표현에 절대적인 우위를 줌으로써 내용을 말할 것도 없고 지시대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실제 언어생활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기호학을 거짓말에 관한 이론이라 했던 에코의 비판의식을 무시하고 기호의 거짓 세계에 그냥 빠져 버리는 기호적 실천(*pratique signifiante*; *signifying praxis*) 혹은 거짓의 연쇄작용일 뿐이다. 즉 기호학적 실천(*pratique semiotique*; *semiotic praxis*)이 아니다.

한편, 언어가 현실을 모방한다는 언어모방론에 따라 개인의 심연을 버리고 객관적 세계에 기대어 언어의 기능을 말하는 오랜 전통은 아직도 튼튼하다.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생활언어는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서로 대치되는 계기적 언어 사항들을 연결하는 관계”로서 소쉬르의 통시성의 개념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²⁷⁾ 언어를 체계적으로만 바라보기에 언어의 현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붙잡아 둘 수 없는 우연과 변화가 상시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모방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기술되듯이, 기존의 사물을 새로운 자료를 통해 다시 나타내는 것(*representation*)이다. 이것이 발전하면 텐느의 문학론에서처럼 언어로 만들어진 문학들이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²⁸⁾

다른 한편 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도 연결된다. 이는 언어가 객관적 현실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객관적 현실이 흘러가는 방향이나 그 주체의 무의식에 관하여 말하는 언어를 모방론과 연결 지운다. 보다 더 형이상학적이다. 예를 들면, 부르주아 언어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상품생산과

27) de Saussure, F., 앞의 책, 202~203쪽.

28) 김현, 『프랑스 비평사-근대』, 민음사, 1992; H. Taine, 유령 역, 『영문학사 서설』, 을유문화사, 1964.

교환의 현실을 반영한다. 인기 좋은 사람에게 “잘 팔린다”는 표현, “저렴한 발언”의 표현 등이 그렇다. 구체제의 언어는 노동생산성과 교환의 현실을 반영한다. 20대에게 “쓸 만하다”, “장가가도 되겠다”라 말할 때의 경우가 그렇다. 이처럼 언어는 당시대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²⁹⁾ 그리고 언어는 문학이라든가, 기사, 회화 같은 사회적 구성물 즉 문화가 된다.

현실을 직접 반영하는 것으로 언어를 바라보거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언어를 바라보거나 모방적 언어론은 현실을 중재하는 구성물로서 언어를 보는 공통점을 가진다. 언어는 자의적이라서 아무 표현이나 내용을 가지고와서 서로 붙여 만들어 내는 생산적인 (productive, constructive) 것이기도 하지만, 지시대상의 객관적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를 그려내는 기술적인(descriptive, natural) 구성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모방(Mimesis)이라는 것은 복사(copy)가 아니라 언어로 만들어진 객관적 현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구성물이다. 이 구성물을 다시 구성하고 연거푸 재 배치, 재 맥락, 재 인용하는 것은 대다수의 경우 객관적 현실뿐만 아니라 언어적 구성물 또한 왜곡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낼 수가 없다.

3. 사례의 접근: 바이마르 시대의 문화와 신자유주의의 언어

어떤 표현이 감각적으로 다른 표현과 유사하다고 해서 모방하는 것은 유치한 일이다. 예를 들면, 안방 스위치에 스위치라고 라벨을 달거나 꽃 배달부가 꽃 모자를 쓰고 다닌다면 이처럼 조악한 모방이 없을 것이다. 강아지가 멍멍 짖는다 해서 멍멍이라고 부르거나, 제철소에서 일을 잘한다 해서 별명을 강철로 붙이는 경우가 그런 것이다. 매우 기초적인 언어 생산 방법이지만 이는 사물(지시대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의 이미지

29) Lukacs, G., 박정호, 조만영 역, 『역사와 계급의식』, 거름, 1983, 108~118쪽.

이상을 상상하거나 유추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준다.

한 때 오웰(George Orwell)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이후 어떤 사회현상의 특징을 표현코자 할 때 과장되거나 조악한 은유를 통해 영어를 썼다고 비판한 바 있다.³⁰⁾ 전쟁에서 이긴 인물을 realm(장엄한)으로 표현하거나, 총리가 된 사람을 throne(권좌, 권력)에 올랐다고 표현하거나, 무력행사를 mailed fist(철갑을 두른 주먹), 권력행사를 sword(검)를 휘두르는 것으로, 침략행위를 jackboot(군화발)에 짓밟힌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조악성이 그런 것이었다. 사물의 가장 원초적인 내용을 모방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현상을 곧바로 낙인찍는 표현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조악한 모방은 언어의 청각 이미지가 약간 유사하다는 이유로 언어를 유사발성 단어로 모방하는 억지까지 이른다. ‘북경에는 북경대, 동경에는 동경대, 서울에는 서경대’ 혹은 ‘오빠가 아빠됩니다’와 같은 조악한 청각 모방이 그런 것이다. 이는 앞서 크리스테바의 예를 통해 설명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조악한 표현들이 영국의 부르주아적 스노비즘의 반영이라면 그 다음 시대인 20세기 초의 영국은 서구문화의 전반적인 패배주의를 반영한다.

엘리엇(Thomas S. Eliot)이 ‘황무지’라 불렀던 1920-30년대에는 세계 대전, 경제 붕괴, 실업, 가난, 범죄, 대량이민 등의 국가와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대중은 “우리 시대가 뭐 어때서?”라며 멋대로 살았다. ‘위대한 개츠비’의 경우처럼 중상층은 자동차와 칵테일파티를 예찬했다.³¹⁾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 대중은 미국 중산계층처럼 주식투기를 시작했다. 노동과 가정, 정치권력과 산업적 현실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갔다. 그리고 경제공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엘리엇은 현실을 벗어난 낭만적인 사고와 개인의 이기심이 극도로 달해 세계를 황무지처럼 만들었

30) Orwell, G.,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 1946. Retrieved from http://www.npr.org/blogs/ombudsman/Politics_and_the_English_Language-1.pdf

31) Fitzgerald, F. S., 『위대한 개츠비』(1921), 김옥동 역, 파주: 민음사, 2009.

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개인의 무한한 자유의 분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과 역사적인 지성이 다시 필요하다고 했다.³²⁾ 마찬가지로, 벤야민 또한 동시대의 정신적 황폐에 저항했다. 벤야민이 살았던 1920-30년대 독일과 동부유럽의 문화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자유주의의 데카당스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는 극도의 인플레이션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 있었다. 십 여 정당이 난립할 정도로 정치투쟁이 난무했다. 예술표현이 미학으로부터 프로파간다의 기능으로 변해가면서 예술의 미적 표현이 선전, 대중화되어갔다. 미술은 조악한 포스터와 추상표현으로 대체되었다. 건축에 있어서는 지붕과 장식, 마당과 정원을 없앤 대중 아파트가 탄생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고 대중문화는 카바레 시대라 부를 만큼 감각적이며 쾌락 중심적이었으며 한 번 만났다가 바로 헤어져 다른 사람과 다시 뭉치는 이합집산을 반복했다.³³⁾ 역사는 계급의식을 통해 발전한다던 당시 헝가리 문화부 장관 루카치(Georg Lukacs)는 정권을 잡자마자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계급의식을 옹호하기는커녕 대학 캠퍼스의 성해방에만 몰두했다.³⁴⁾ 프로이트가 증언하듯이, 마르크시즘 같은 진보정신마저도 부패하여 가톨릭교회가 오히려 사회정의의 아이돌이 되어갔던 시절이었다.³⁵⁾

푸코는 신자유주의가 만개하는 1980년대 벽두에 사망했는데, 사망 직전 독일 바이마르 시대의 극단적 자유주의가 실은 미국 신자유주의의 극단적인 양상과 비슷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³⁶⁾ 계급의식이 사라지고 사회 곳곳에 심어진 개인주의는 편협한 정치적 이념을 개인 스스로 체화

32) Eliot, T. S., 이창배 역, 전통과 개인의 재능, 『T. S. 엘리엇 문학비평』, 이창배 전집 3.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9, 14쪽.

33) Sefton, D., *Weimar Germany: Democracy on Trial*, London: Macdonald. 1972, pp.82~93.

34) Buchanan, P. J., *The Death of the West*, New York: St Martin's Griffin, 1992, p. 75.

35) Freud, S., 「인간모세와 유일신교」(1948), 『종교의 기원』, 이윤기 역, 프로이트 전집 13권, 서울: 열린책들, 2013, 371쪽.

36) Foucault, M., *The Birth of Biopolitics*(1979), Rabinow P(ed.), *Michel Foucault,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New York: The New Press, 1997, pp. 73~79.

시켰고 말의 내용은 진보적일지 몰라도 말의 형태는 권력의 프레임(discursive formation)에 녹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말에 대한 검열이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시민을 검열하는 대중적 파시즘도 함께 만들어지게 된다. 푸코가 바이마르 문화와 유사하다고 예견했던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예는 담론문화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청소부’(street cleaner)를 ‘환경미화원’(environment cleaner)으로, ‘원자력’을 환경친화산업(environment friendly industry)으로 바꾸어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 PC)이라는 개념으로 귀결, 논의되었으며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치적 정당성(PC)에 따르면, History를 Herstory로, Black의 표현을 African American으로, manhole의 man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없애자는 식이다. black coffee를 coffee without milk로 바꾸자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언어조작은 왜곡이 아니라 순화였다. 편견과 차별을 받아온 사람이나 역사를 달리 부름으로써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언어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표현만 바꿈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진실을 덮어 버리는 작용을 한다. 1950년대 미국기업은 아프리카의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c) 산업을 ‘그린혁명’(Green Revolution)이라 부르는 바람에 미국 내부와 아프리카 현지에서 정서적, 정치적 갈등을 일으켰고 아직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 말해 놓고 실제로는 이민정책과 국제결혼을 지칭하는데 이는 현실을 왜곡하는 용어이다. 유기농(organic)이라 말해 놓고 10%만 유기농 원료가 들어간 것을 유기농 제품이라 법적으로 정하면 이 표현은 거짓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뉴미디어와 학, 교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어떤 내용도 PC언어를 거쳐야 한다는 암묵적인 흐름으로 인하여 진실을 탐구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할 비판의 언어

들이 단지 그 표현이 PC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차단당하고 있다.

언어를 통한 극단적 개인주의에 대한 이 장의 소결론을 내린다면, 언어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로지 표현에만 매달리는 PC의 언어는 내용마저도 정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명백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경험적으로 보아도 자연발생적인 언어에 메스를 가하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독재사회에서 벌인 일이며 조지 오웰 같은 통제사회 비판가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민주국가에서 실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표현의 자유는 위로부터는 극우적인 국가가, 밑으로부터는 진보적이라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 및 통제사회를 거부하고 사회진보를 바란다는 진보적인 이들이 이런 언어 검열행동을 지지하고 행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아이러니이다.

20세기 말을 지배했고 현재에도 그 영향력이 남아 있는 이런 기호학적 언어구성 습관이 벤야민이 수십 년 전에 말했듯이, 현대인의 언어 모방능력이 쇠퇴하였거나 혹은 변해서 그런 것이라면 그 모방능력을 개선하거나 되돌림으로써 언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열의 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시대상에 대한 고려를 다시 불러 오으로써 언어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Ⅲ. 벤야민의 공헌

벤야민은 기호의 생산성과 자연성을 중재하면서 기호창작과 해석의 인내심을 요구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기호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의미의 심연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호의 지시대상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면서 그에 맞추어 표현을 조율함으로써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번역가의 과제’는 그의 탁월한 기호-언어학적 식견을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1. 벤야민의 구조적 기호-언어론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모방적 능력은 물론이고 모방적 대상도 수 천 년이 경과하는 동안 항상 동일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우리는 유사한 것을 만들어 내는 재능과 유사한 것을 인식하는 재능은 역사적 변천 속에서 변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변화는 모방적 능력의 점진적 감퇴라는 현상에 의해 방향과 성격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 하면 현대 인간의 지각세계는 옛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매력적인 교감이나 유사성의 극히 적은 잔재만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된 이유는 이러한 능력이 쇠퇴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것이 변형되었기 때문일까 하는 의문이다.”³⁷⁾

벤야민은 현대인의 모방적 능력이 감퇴하여 “의미의 재현이 더 이상 결정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결을 위한 기반은 상실”³⁸⁾되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앞서 많은 사례를 들었듯이, 언어의 모방은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떨어져 결국 패러디와 말장난이 난무하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연 것이다. 이에, 벤야민은 비감각적 모방과 그 언어들을 찾는 것으로 조악한 모방언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감각에 들어오지 않는 언어란 다름 아닌 의미중심의 언어인데, 근대 언어학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감각에 관계하는 시니피앙이 아니라 개념에 관계하는 시니피에의 차원을 말한다.

“동일한 것을 뜻하는 여러 상이한 언어들의 단어들을, 이 단어(사물)들의 의미를 중심으로 모아 해서 놓으면 우리는 이들 단어들이 모두-비록 그것들이 상호 아무런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지라도-어떤 방식으로 그 의미에 대해 그 중심부에서 상호유사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말해진 것과 의미되어진 것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37) Benjamin, W., 언어의 모방적 성격, 앞의 책, 316쪽.

38) 위의 책, 328쪽.

쓰인 것과 의미되어 진 것 그리고 말해진 것과 쓰여진 것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으로 비감각적 유사성인 것이다”³⁹⁾

벤야민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언어론과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 의미를 중심에 놓고 표현된 언어들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머니’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모성, 출산, 그리움, 아픔, 따뜻함, 추억과 같은 의미의 흔적들을 찾지 말라는 것이다. 거꾸로 모성의 내용에 의미를 두고 그 의미에 상응하는 표현들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 뿐만 아니라, 비감각적 유사성의 산물로서 조국, 고향, 여성, 자연 등의 표현이 나오게 된다.⁴⁰⁾ 출산의 내용에 의미를 두고 그 의미에 상응하는 표현들을 찾으면 씨앗, 발, 물, 시간, 탄생의 표현이 나온다.

어차피 모든 표현은 내용을 끌고 오고 모든 내용은 표현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결국 표현과 내용은 서로 순환 될 것이다. 여기서, 감각적인 표현을 제쳐두고 형이상학적 개념을 먼저 가지고 온다면 감각으로만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표현들이 자동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안경, 축음기, 팔, 다리, 자동차 등은 모두 감각적 표현이지만 이들 표현은 모두 근시안, 음악, 인간, 속도 등은 추상적인(혹은 은유에 연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라도 의미작용뿐만 아니라 표현작용을 스스로 일으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모든 모방적 요소는 오히려 불꽃과 비슷하게 일종의 운반자에 의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운반자가 곧 언어의 기호학적 요소이다... 그 까닭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사성은 많은 경우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경우, 하나의 섬광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섬광처럼 확

39) 위의 책, 317쪽.

40) 이는 언어를 은유의 세계로 보는 레이코프의 판단과도 유사하다. “개념은 은유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행위도 그렇다. 따라서 언어란 은유적으로 구조화 된 것이다.” 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 5.

하고 스쳐 지나가 버린다. 쓰는 것과 읽는 것을 빨리하게 되면 언어적 영역에서의 기호학적 요소와 모방적 요소의 융합은 상승된다.”⁴¹⁾

벤야민은 언어생산에 있어서 현실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반면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기호학적 능력 또한 못지않게 인정한다. 그 능력은 결국 인간의 영혼과 이상, 꿈, 역사적 경험, 저변의 무의식이 자연과 만나는 지점으로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그 지점에 언어의 신비함이 자리한다. 예를 들면 ‘살살해’라는 과거 어떤 작가의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진 피부(살)를 대하듯이 부드럽게 행동하라는 객관적 현실의 신비함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혹은 ‘집으로’라는 표현을 과거의 어떤 작가가 했다면 그것은 집으로 가옥을 만들던 어떤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처럼 표현과정은 벤야민에게 있어서 말장난이나 패러디가 아니라 지시대상이 지닌 인간의 영혼과 이상, 꿈, 역사적 경험, 저변의 무의식을 언어와 융합시키는 일이다. 작가의 공시적인 언어 생산 활동이 통시적인 어떤 지시대상과 융합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벤야민에 있어서 언어는 모방한(할) 것과 기호학적으로 구성한(할) 것이 섞여 있다. 그리고 그 본 모습은 이 두 구성요소가 빠른 속도로 지나칠 때 어떤 섬광이 나타난다. 즉 기호에 대한 지각이 빠르면 기호에 대한 접근성 보다 지시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물론 지각이 빠르다는 것은 대충 보고 지나친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자성어나 김삿갓의 시처럼 촌철살인의 인지와 생산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내용과는 깊은 상관없이 어떤 의미를 떠 올리는 경우가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문장을 보면 통일이라는 지시대상이 뚜렷한 단어가 있고 대박이라는 지시대상이 모호한 단어가 있다. 이 단어를 천천히 읽거나 말하면 통일과 대박이라는 기호에 매달려 의미를 고민하게 되지만 빨리 말하거나 읽으면 명료함과 모호함이 서로 섞이며 문장의 융

41) Benjamin, W., 앞의 책, 318쪽.

합적 성격이 살아난다. 통일과 대박 각각의 지시대상이 아니라, 융합적인 지시대상 즉 두 단어가 합쳐서 서로 공기(cooccurrence)하고 은유하여 우리의 뇌 속에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섬광처럼 떠 올리게 된다.⁴²⁾ 위의 문장이 지닌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통일을 말하는 사람의 통일에 대한 의미론적 지평으로 이를 떼면 ‘경제성’의 성격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는 표현이 지닌 내용 그리고 내용이 지닌 지시대상의 성질을 통해 섬광같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지, 표현 그 자체가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문맥에 따른 내용이 진정한 의미를 주는 것도 아니다.

언어의 신비함이란 이처럼 자연의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차원까지 모방했던 옛 사람들의 능력과 의미론적 지평을 말한다. 벤야민은 그 능력을 번역가에게서 발견하고자 한다. 언어의 표현과 내용이 서로 자의적이라면 이를 번역하는 사람은 자의성의 규범(약속)들을 자국어의 기호학적 규범(표현의 생산)에 맞추어 주도록 해야 한다. Father의 표현을 통해 거세를 설명하는 프로이트의 저서를 번역할 경우, 아버지가 거세와 연관한다는 것은 오로지 프로이트 자신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독일어 사용권자나 저 멀리 영어, 한국어 사용권자 그 누구도 내용을 알 바 없다. 따라서 이는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의미작용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아버지의 표현을 통해서 기독교의 권위를 은근히 의미코자 할 때 영어 번역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국어 번역은 어려워진다. 한국어에서 아버지의 표현에 종교적 권위의 의미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 번역가는 프로이트의 서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 추가적인 정보를 통하여 독일어의 아버지와 영어의 아버지 그리고 한국어의 아버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언어표현이 지닌 의미의 전반적인 영역을 점검할 수 있다. 한국어 아버지의 의미영역에 서양어의 기독교적 의미를

42) Lakoff, G. & Johnson, M., *ibid.*, p. 155.

상호교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적절한 표현을 만들어 의미를 충당해야 한다. 이로써 언어 상호간의 친화성을 추구할 수 있다.

“역사를 초월하는 모든 언어 상호간의 이러한 친화성은 하나의 전체로서 각각의 언어 속에 놓여 있는 의도, 다시 말해 각각 개별적 언어 그 자체로서는 실현될 수 없고, 각 언어 상호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총체성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언어 그 자체에 내재하는 의도-우리는 이를 순수한 언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속에서만 찾아 질 수 있다”⁴³⁾

한국어, 아버지의 표현에 과연 신의 개념이 있을까? 서양의 기독교를 받아 들여 ‘하느님 아버지’라 주문을 외는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어 아버지는 이미 신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강요된 의미이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독 교회에서 아버지를 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인정하여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상, 한국어, 아버지의 표현 속에 어떤 유일신적인 의미가 한국인의 영혼 어디인가에 잠재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은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나는 인간이니만큼 인간을 낳은 유일한 자에 대한 확대된 판단을 한국인들이 하지 않았을 리 없기 때문이다. 조금 더 나아가 서양어로서 마리아의 종교적 위치를 지정하는 Immaculate Conception(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는 개념)의 한국어 번역 ‘무염수태-원죄 없는 잉태’가 한국어의 의미영역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원죄의식 자체가 서양의 이데올로기인데 거기에 성모 마리아가 포함되고, 마리아의 원죄와 원죄에 관한 논쟁까지 끼어드는 의미의 복잡한 지평을 한국어로 소화하기에 거대한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결국 벤야민의 순수언어의 개념이 향후 얼마나 많

43) Benjamin, W., 번역가의 과제, 앞의 책, 324쪽.

은 장애를 가질 것인가 판단해 볼 수 있다. 순수언어를 찾아가는 노력은 이와 같이 “여러 언어들이 지니고 있는 이질성과 논쟁을 벌이는” 일이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표현 방식을 통해 상호 보완되고 화해함으로써 조화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진리의 언어”를 찾으려는 노력이 된다.⁴⁴⁾

최소한 서양어의 영역 속에서 벤야민은 전통과 근대 언어학을 화해시키고자 한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기 이전에 주관적 개인이 자신의 의미와 의지를 표현하는 자기 구성적 체계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사람들이 자아를 상실하여 타자의 언어를 통해서만 표현을 한다지만 이는 앞서 설명한 언어의 신비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번역 또한 남의 언어를 그대로 복사하여 기계적으로 옮기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 보편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벤야민의 메시아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메시아적인 노력은 단어를 개별적으로 다루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즉 단어가 가진 의도나 화자의 뜻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지닌 의도와 뜻이 자라나는 방식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 Father라는 단어가 유일신을 지칭한다는 방향을 알아 채 번역가는 이를 아버지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느님’으로 번역할 수 있다. 앞서 PC 언어의 의도가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언어인 동시에 내용과는 관계없는 강제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눈치 채 번역가라면 이를 정치적 정당성이라 번역하지 않고 ‘입 발린 소리’로 번역할 수 있다. 벤야민의 번역론은 이처럼 표현을 넘어서 의미의 구조를 먼저 점검한 뒤 다시 표현을 재구성하는 의미구조론적 태도를 드러낸다.

“의도하는 바를 의도하는 방식과 구별하지 않으면 언어철학의 기본법칙을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빵이라는 뜻의 독일어 <Brot>와 불어

44) 위의 책, 325쪽, 327쪽.

<pain>이라는 말은 동일한 대상을 의도하지만 그 의도하는 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의도하는 방식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 두 단어는 독일인과 불란서인들에게는 무언가 좀 다른 것을 뜻하고 이 양 단어는 서로 대체될 수 없으며 또 궁극적으로 서로 배제하려는 성향마저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호 보완되지 않는 개별적인 언어들에 있어서는 의미는 마치 개별적인 단어와 문장들이 그런 것처럼 한번도 상대적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그 의미가 의도하는 여러 상이한 방식의 조화로부터 순수한 언어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까지는 끊임없는 유동상태에 있다”⁴⁵⁾

작가가 Father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코 가정 내 아버지의 뜻을 의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번역가가 이를 아버지라고 직역하거나 해석한다면 이는 원문의 의미도 전할 수 없고 번역서적을 읽는 독자도 해석의 고통을 가지게 된다. 단어와 문장의 의도를 직접 접근하여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일은 이를 떼면, 위에서 사례로 든 여러 가지 방식의 조악한 모방의 행위이다. 그리고 단어와 문장을 객관적인 현실이나 형이상학적 지시대상으로부터 따로 떼어다가 독립시키는 일도 순수한 언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다. 표현이나 내용이 항상 유동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노마드적 언어행위는 개인의 이름으로 인류의 폭 깊은 소통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벤야민의 입장은 이처럼 기호의 인류학적 혹은 역사적 의미과정을 따지지 않고 개인이 활용하는 기호의 표현과 그 개인적인 결과만 따져 왔던 화용론적 언어행위와 연구의 자세를 비판하는 기호-언어학적 자세인 것이다. 이런 자세는 에노(Anne Hénault)가 설명했던 구조기호학(특히 파리 기호학)의 언어철학적 전제와 같다.

“오늘날까지 인류는 이런 의미의 실행이라는 분석되지 않고 코드화되지 않은 실재에 아주 잘 적응해 왔으며, 인류는 위의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기호”에서 “메시지”로 넘어갔다. 인류는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의 두 가지

45) 위의 책, 324~325쪽.

모순적인 기능을 “구별하지도” 않았으며, 인류가 본능적으로 수행해 왔던 수많은 기호학적 조작들(즉, 여러 문장들이 표현하는 것을 한 단어로 압축 시키거나, 또는 단어나 명칭으로 포섭된 것을 하나나 여러 문장을 이용하여 전개 시키는 환언, 요약, 번역, 정의들)을 숙고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⁴⁶⁾

사람들은 붉은색 신호등에서 ‘금지’라는 내용의 형식을 알면서도, ‘금지’의 형식이 다른 컬러, 다른 문양, 다른 언어, 다른 제스처로 어떻게 나타나는 지 역사적으로 패턴화 시키지를 못했다. 예를 들면, 그녀는 분명 장동건을 좋아했지만 정작 그와 정반대로 생긴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 왜 그랬을까? 그녀는 장동건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장동건이 지닌 부드러움과 지적 면모 즉 의미를 좋아했던 것이다. 즉 기호가 보여주는 여러 표현의 양상이 아니라, 기호가 의미하는 방식을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긴 것(표현)은 달라도, 그런 면모(의미)를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근대는 이런 인류학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관계 방식을 충분히 이론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귀납법과 실증의 버릇이 지나치게 깊어 기호학이 나올 때까지 이런 판단을 미루어 두었다는 것이 에노의 판단이었다. 실로 구조 기호학의 언어철학적 토대를 만든 엘름슬레우(Luis Hjelmslev)는 근대서구의 이런 귀납적 편견에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으며,⁴⁷⁾ 구조 기호학은 이것을 실천화한 학문으로 볼 수 있다.

벤야민은 단어와 문장을 방법론적으로 “사기그릇의 파편이 사기그릇의 일부를 이루듯이 보다 큰 언어의 파편으로 인식하고... 번역가의 원초적인 활동무대는 문장이 아니라 말”⁴⁸⁾ 즉 담론의 차원에 있다고 했다. 이리하여 단어와 문장의 직접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 또한 기호학의 전제조건인 문장보다 더 상위의 범주를 통해 문장을

46) Hénault, A., 홍성표 역, 『기호학에로의 초대』, 어문학사, 2000, 18쪽.

47) Hjelmslev, L., 김혜련 역, 『랑가주 이론 서설』, 동문선, 2000.

48) Benjamin, W., 앞의 책, 329쪽.

이해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상징하는 것은 단지 언어의 형상체 속에서만 나타나지만, 상징되어지는 것은 언어 자체의 생성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언어의 생성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만들려고 하는 것-바로 이것이 순수한 언어의 핵이다”⁴⁹⁾고 함으로써 언어의 진정한 의미는 형상이 아니라 의미의 자체적인 생성과정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레마스가 제시했던 생성적 기호론과 유사한 지적 자세이다. 그레마스는 익히 알려졌다시피, 언어의 모든 의미작용은 보편적 의미의 세계(semantic universe)를 만들어 낸다고 했다.⁵⁰⁾ 그는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Generative trajectory)을 담화, 기호 내러티브의 표층과 심층의 층위를 구분해 냈다. 파편적으로 보이는 어떤 종류의 담화이든 담화의 각 표현의 기저에 있는 내러티브와 가치론적 의미구조(관계)에 근거하여 의미가 생성되어 나온다는 것이다.⁵¹⁾ 벤야민은 이러한 의미의 생성적인 층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더 이상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고 또 표현하지도 않는 무표현적이고 창조적인 말이 언어에 내재하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되고 있는 이러한 순수한 언어 속에서 모든 전달과 의미 및 의도는 드디어 이러한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사멸하게 되어 있는 어떤 층을 만나게 된다. 이 층을 통하여 번역의 자유는 새롭고 보다 높은 차원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⁵²⁾

순수한 언어는 어떤 층에 있다. 그리고 이 층에서 담화의 “의미와 의도가 사멸해 간다”. 이 뜻은 표층적인 단어와 문장이 기호학적 조작에 의해 형상과 의소로 축약되어 구조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노의 설명처럼 “여러 문장들이 표현하는 것을 한 단어로 압축시키거나, 또는 단

49) 위의 책, 330 쪽.

50) Greimas, A. J. & Courtes, J., *Semiotic and Language*, I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s, 1979, p. 298.

51) *Ibid.*, p. 134.

52) Benjamin, W., 앞의 책, 331쪽.

어나 명칭으로 포섭된 것을 하나나 여러 문장을 이용하여 전개시키는 환언, 요약, 번역, 정의들”이다. 그레마스는 이를 동위성과 내러티브, 의미의 관계 속에서 시행하는데,⁵³⁾ 의미 생성에 있어서 내러티브나 의미구조의 층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고 표현이 될 수도 없는 일종의 구조이다. 표현은 결국 의미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그레마스에게 이는 어떤 보편적인 차원으로 말해지지만, 벤야민에게는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순수 언어의 지평이 되는 것이다. 결론으로, 언어의 순수한 핵 혹은 순수 언어란 의미의 보편적인 지평이다. 이 점에서 벤야민의 번역론은 번역현상을 논의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기호-언어론이 되는 것이다.

2. 벤야민의 역사적 기호-언어론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층위 혹은 관계 위에서 의미를 생산한다고 할 때, 각 의미(혹은 의소)의 관계양상이 남성 vs 여성처럼 언제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 vs 노동자처럼 역사적인 관계양상이 오히려 더 많다. ‘부르주아’의 예를 든다면, 14세기부터 도시의 상인을 지칭했던 부르주아의 용어가 처음에는 유태인을 포함한 낮은 계층의 사람을 지칭했다가 17세기 프로테스탄트 공장주를 의미하고, 18세기에는 새 시대를 이끌 시민계급을 의미했다. 19세기에는 부자를 의미했으며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는 위선과 경멸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 20세기 후반에는 거의 사라져 가는 용어가 되었다. 이에,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관계는 사용자와 피사용자라는 어떤 보편성을 가질지 몰라도 부르주아의 의미, 노동자의 의미 그리고 그 두 항목이 관계 짓는 양상은 시대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피사용자라 하더라도 계약직 고학력 노동자나 보보스 같은 자유직업 계층은 부르주아적 삶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불안정한 직업인

53) Greimas, A. J. & Courtes, J., *ibid.*, 1979, p. 83, p. 163.

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이다.⁵⁴⁾ 이를 구조적인 관계 속에서 분석하려 할 경우, 부르주아와 노동자, 부자와 빈자의 관계는 예전과 같은 고전적인 양상을 유지하기 어렵다. 관계양상이 변하면 당연히 표현도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보보스라는 단어가 탄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PC언어의 사례는 언어모방과 생산에 있어서 위와 같은 관계양상의 변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표현의 역사를 무시한 것이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자 하면서 남의 의견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언어들은 의미의 충위를 거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의미와 표현의 언어학적 진실도 거부하는 일종의 언어폭력이다. 언어폭력에 대항하는 언어폭력인 것이다. 더 나아가 PC언어는 하나의 의미에 하나의 단어를 적용하는 전문용어와 같이 일상의 용어를 변화 없게 구성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전문용어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소통을 편하게 하고자 만든 용어인데, 대다수 PC언어는 그런 전문용어가 아니라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독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PC언어의 또 다른 특성이 도출되는데, 이것이 약자를 위해 만든 언어가 아니라 약자를 방어한다고 자처하는 강자가 만들었다는 점이다. 즉 차별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어를 순화한다는 것은 생각과 달리, 공인된 언어나 권력의 언어를 교정하기 보다는 권력이 언어를 순화시켜 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더 많고도 깊다. 이라크 폭격을 공중지원(air support), 요인 암살자를 히트맨(Hitman), 타국의 주권침해를 인류애적 간여(Humanitarian Intervention)로 쓰는 경우가 그렇다. 이와 같은 정치적 정당성의 표현을 지지하는 것은 언어의 구조와 역사에 대한 지극히 순진한 사고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대다수의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언어란 특정 집단이 특별하게 조작할 수 없는 것이다. 언어의 존재론적 실체가 그렇기도 하고, 역사적인

54) Brooks, D., 황선호 역, 『보보스』, 동방미디어, 2001, pp. 56~57.

경험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무수히 많은 사례를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조작하여 현실의 포장하려는 PC언어는 언어조작의 기술이나 세뇌의 환경이 충분하게 성숙했다고 믿는 이들에 의한 정치적 선택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운동이 가진 제국주의적 색채는 다른 지역의 언어사용자들과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History를 Herstory로 하자는 것은 history의 어원을 몰라서 그런 것이며, 아프리카를 꺼내 들어 미국 흑인(Afro-American)을 지칭하면 결국 유럽 피언 출신 미국인들과의 차별을 일구어 내기 마련이다. 커피 또한 우유를 탈 이유가 없는 나라가 많다. 중요한 것은 black의 용어에 한정시켜 말한다면, 이 언어순화가 앵글로색슨 국가에 퍼져 있는 인종주의를 비판하지는 않고 말만 비비 꼬는 행태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일이 충분하게 진행되어 교육계나 교과서, 방송언어 등으로 굳어진 이 정치적 정당성의 표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언어를 검열하게 만들며 또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에 대한 모든 비판마저 침묵하게 만들고 있다.⁵⁵⁾ 이런 언어검열의 움직임은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에 매우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갈등이 혼재하는 언어를 무조건 순화하는 바람에 언론뿐만 아니라 대학과 같은 지식사회까지도 진실탐구의 가능성을 차단한다.⁵⁶⁾

말이란 말을 하고 받는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언제나 새로운 편견이나 차별이 잠재하기 마련이며, 말을 바꾼다 해도 시간이 흐르거나 현실이 변화하면 아울러 바뀌는 의미를 지닌다.

55) “검열의 조작적 정의는 무력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재갈물리기로부터 벗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무력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국가 뒤에 숨어 이를 행하는 것이다.” MacKinnen, C., *Only Words*, MA.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93, p. 10.

56) “검열은 시장, 정부지원금, 미술관 큐레이터, 신문 등으로 넓혀졌다... 비판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을 포함(누군가에 대한 비판은 곧 검열이 된다)해서 그렇다.” Burt, R., (Un)Censoring in Detail. R. Poster(ed), *Censorship and Silenc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31~32. 여성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발언을 검열하는 기능도 SNS 등의 매체를 통한 시민이 하지만 그 검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검열하는 일도 시민이 한다는 점에서 ‘밀으로부터의 통제사회’라는 허슬리적인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언어의 이러한 존재론적 양상에 권력이 끼어 들 수는 없는 일이다. 버틀러(Judith Butler)는 작금의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와 검열 논쟁에 대하여 “발언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변화되거나 탈선될 수 있다⁵⁷⁾”면서 말이란 문맥에 따라 다시 배치시키거나 재인용을 하거나 전복하여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화자와 청자를 공시적인 입장에서 보고 발언을 일종의 개인적 전략으로 이해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한다.

언어의 표현이든 내용이든 그리고 구조적인 의미의 관계 또한 시간(즉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변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언어를 자연스레 놓아두는 것은 언어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언어의 생산성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언어의 모방성과 재현성에도 관심을 두고 언어행위를 하자는 것이다. 벤야민은 이와 같은 자연스런 역사적 관점을 덧붙인다. 원문과 번역문은 원작가와 번역가가 의도하는 방식을 고려함으로써 단어와 문장이 지닐 의미의 보편적인 상태를 지향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 그 의미도 방식도 변하기 때문에 언어의 성숙과정과 산고를 지켜보는 하나의 문학형식으로서 번역을 제시한다.

“이미 그 의미가 완전히 정해진 말들도 성숙의 과정을 겪기 마련이다. 한 작가가 살던 시대의 문학적 언어의 경향은 시대가 지나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또 잠재적인 경향은 기존 형식으로부터 새로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이와 같은 변화와 의미의 끊임없는 변화의 본질을 언어와 작품의 고유한 삶에서 찾지 않고 후세 사람들의 주관성(가장 조야한 심리주의까지 포함해서)에서 찾는 것은 원인과 본질을 혼동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강력하고 생산적인 역사적 과정의 한 단계를 사고의 무

57) Butler, J., 유민석 역, 『혐오발언』, 알렙, 2016, 168쪽.

능력으로 인해 부인하는 것을 뜻한다... 위대한 문학작품의 의미와 뉘앙스가 세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변모하는 것처럼 번역자의 모국어 역시 변모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번역 역시 어쩔 수 없이 그 언어의 성장의 일부가 되고 또 그 언어의 재생 속에 흡수 동화되기 마련이다 “58)

벤야민의 이 같은 역사적 관점과 공시적 관계의 관점은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번역하는 작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인내를 요구하는 일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검열처럼 정부가 끼어들거나 PC 언어의 검열처럼 시민들이 상호간 감시하는 일이 또한 얼마나 깊은 차원의 고려가 필요한지도 알려주고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더욱 강화되는 시민의 언어감시 현상은 언어생산의 무한한 자유가 또한 얼마나 많은 시민검열을 양산해 왔는가 하는 패러독스를 이해하게 만든다.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제와 주변화가 아니라면 무한정 주장될 수 없는 것이며 무한한 자유는 무한한 검열 집착증을 낳기 때문이다.⁵⁹⁾

벤야민의 메시아적 기호-언어론은 데리다가 비판하는 언어의 형이상학적 지평도 아니고 기계적인 반영론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절충적인 것도 아니다. 파리 기호학파가 견지했던 의미 구조적 논리위에서 기호활용자(즉 번역가)의 인내심을 요구한 것이다.

IV. 결론

이 글은 탈진실의 현실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언어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했다. 문제를 제기한 대상은 언어 표현방식의 쾌락적 가벼움과 그에 못지않은 시민들 사이의 언어검열이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푸코가 지적한 독일 바이마르 시대와 신자유주의 문화를 병렬

58) Benjamin, W., 앞의 책, 323~324쪽.

59) Burt, R., *ibid.*, p. 31.

시켜 개인주의와 극단적 자유주의의 특성을 논의 했다. 이 특성은 언어가 품는 지시대상을 단지 형이상학적으로만 이해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기호-언어론의 그것이며 바이마르 시대의 그것처럼 언어학적 데카당스이다. 그리고 언어의 쾌락적 활용이 결국 탈진실과 언어검열에까지 이른 이유를 언어의 시적 창작을 위해 지시대상과 소통에로의 의지를 거부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찾았다.

이 글은 언어의 본래적 기능은 뜻의 소통이지 시적 표현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벤야민을 소개했다. 벤야민은 시적이든 산문적이든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존중했다. 언어의 생산성을 강조하면서도 언어의 보편적인 의미의 지평을 버리지 않았다. 즉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류가 마음의 또아리를 틀고 사는 어떤 보편적인 층이 있어서 이 층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사람답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두려워 하였던 언어행위의 막무가내 현상이 바로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즘이며 탈진실의 모습이다.

사회적인 삶의 모든 면에서 참을성이 사라진 우리시대, 벤야민은 언어에 대한 메시아적인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교훈을 준다. 말 표현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타인의 비난과 비판에 대하여 우리의 성급한 반응을 억누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의 자성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도록 할 수 있다. 언어는 세계에 대한 재현이며 재현된 세계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되돌려 받는 소통의 도구이지, 결코 물질적 자극으로만 판단되거나 활용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언어의 이 역사적 사실만 깨달아도 인간의 소통은 인류의 공존에 이바지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 현, 『프랑스 비평사-근대』, 민음사, 1992.
- 신항식,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 문학과 경계, 2003.
- 신항식, 「초국적 기업의 문화로서 포스트모더니즘」,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49, 한국 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6.
- Benjamin, W.,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민음사, 1983.
- Brooks, D., 『보보스』, 황선호 역, 동방미디어, 2001.
- Butler, J., 『혐오발언』, 유민석 역, 알렙, 2016.
- Butler, J., 『젠더 허물기』, 조현준 역, 문학과 지성사, 2015.
- de Saussure, F., 『일반언어학강의』, 김현권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 Eliot, T. S., 『T. S. 엘리엇 문학비평』, 이창배 역,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9.
- Ferry, L. & Renaut, A., 『68사상과 현대프랑스 철학』, 구교찬 외 역, 인간사랑, 1995.
- Fitzgerald, F. S., 『위대한 개츠비』(1921), 김옥동 역, 민음사, 2009.
- Freud, S., 『프로이트 전집』 13권, 이윤기 역, 열린책들, 2013.
- Hénault, A., 『기호학에로의 초대』, 홍성표 역, 어문학사, 2000.
- Hjelmslev, L., 『랑가쥬 이론 서설』, 김혜련 역, 동문선, 2000.
- Lukacs, G., 『역사와 계급의식』, 박정호, 조만영 역, 거름, 1983.
- Mattelard, A., 『커뮤니케이션-전쟁, 진보, 문화』, 박종수 역, 한울, 1999.
- Mezinski, B., 『러시아와 그 적들 그리고 거짓말』, 방교영 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1.
- Taine, H., 영문학사 서설, 유령 역, 을유문화사, 1964.
- Althusser, L.,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 Essays on Ideology*, London: Verso, 1984.
- Buchanan, P. J., *The Death of the West*, New York: St Martin's Griffin, 1992.
- Burt, R., (Un)Censoring in Detail. R. Poster(ed), *Censorship and Silenc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Derrida, J., *Of Grammatolog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1976.
- Evans, D. & Jenkins, J., *Years of Weimar & the Third Reich*, London: Hodder & Stoughton Educational, 1999.
- Foucault, M., *The Birth of Biopolitics*(1979), P. Rabinow(ed.), *Michel Foucault*,

-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New York: The New Press, 1997.
- Fox-Genovese, E., *Feminism Without Illusions, A critique of individualism*.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 Frey, B. S., Problems with Publishing: Existing State and Solutions,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 New York: Springer, 2005.
- Garraty, J., The New Deal, National Socialism, and the Great Depression,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8, n. 4, 1973/10.
- Greimas, A. J., & J. Courtes, *Semiotic and Language*,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 Guerin, D., *Fascism and Big Business*, New York: Pathfinder, 1973.
- Holston, J., *Holstun Pamphlet Wars: Prose in the English Revolution*, London: Routledge, 2013.
- Holbrook, H. M., The Study of Sign in Consumer Esthetics, Umiker-Sebeok J.(ed), *Marketing and Semiotics*, Berlin, New York, Amsterdam: Mouton de Gruyter, 1987.
- Jameson, F.,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CA: Duke University Press, 1991.
- Kristeva, J.,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4.
- 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Lasch, C., *The Revolt of the Elites and the Betrayal of Democrac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5.
- Martinet, A., *Elements de linguistique generale*, Paris: Armand Colin, 1960.
- MacKinnen, C., *Only Word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Peterson, R., *Trading on Sentiment: The Power of Minds Over Markets*, New York: John Wiley & Sons, 2016.
- Owell, G.,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 1946. Retrieved from. http://www.npr.org/blogs/ombudsman/Politics_and_the_English_Language-1.pdf
- Richard, G., *The Twelve-Year Reich: A Social History of Nazi Germany, 1933-1945*,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1.
- Ricoeur, P., *Freud and Philosophy: An Essay on Interpretation*, MA: Yale Univ. Press, 1970.
- Sefton, D., *Weimar Germany: Democracy on Trial*. London: Macdonald. 1972.
- Starr, P., *The Creation of the Media: Political Origins of Modern Communications*.

New York: Basic Books, 2004.

Winkelman, C. L., *The discourse of conflict and resistance: Elizabeth Cellier and the seventeenth-century pamphlet wars*.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92.

신문, 인터넷 사이트

Retrieved from <http://en.oxforddictionaries.com/word-of-the-year/word-of-the-year-2016>.

Flood, A., 'Post-truth' named word of the year by Oxford Dictionaries, *The Guardian*, Nov. 15 2016.

Viner, K., How technology disrupted the truth, *The Guardian*, Jul. 12 2016.

Krugman, P., The Post Truth Campaign, *The New York Times*, Dec. 22 2011.

Deacon, M., In a world of post-truth politics, Andrea Leadsom will make the perfect PM, *The Daily Telegraph*, Jul. 9 2016.

Krugman, P., The Post-Truth Campaign, *The New York Times*, Dec. 23 2011.

W. Benjamin's thought on translation against the Post-truth Society

Bang, Gyoyoung

Post-truth means an enthronement that public debate is framed largely by appeals to emotion disconnected from a minimal rationality or thinking, and by the desire of talking points to which factual rebuttals are ignored. Post-truth differs from traditional contesting and falsifying of truth by rendering it of secondary importance.

Due to the modern technological ubiquity, omnipresence of different information everywhere especially at the same time, modern men have got a feeling that they could have appropriated knowledges for all of necessary situation. Based on their own desire and belief, they consider these information misled objective and even use to influence an audience and further an agenda, by undermining their own perception and cognition on the real world.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how Walter Benjamin's translation view on the language contribute to solve this present post-truth phenomena as semio-linguistic problem normal. The study hopes to achieve this; firstly by comparing cultural situations between the Weimar Republic's European world where Benjamin has lived and the neoliberal world we live in today; secondly by approaching to and interpreting Benjamin's semio-linguistic view on language as a structural semiotic; finally by repositionning his semiotic in a whole rethinking of our postmodern culture and language activity which have made our world unreal and invisible.

The Weimar Republic and the neoliberal world we live in today have a common characteristic of a perceived decay in standards, morals, dignity, religious faith. By extension, it may refer to a decline in language activity and work ethics, or to self-indulgent behaviour. Benjamin

proposed a kind of enduring Messianism against this common decadence. Against the fragmentation of mass perception on the reality in that/this age, he proposed also a structural thinking biased but augmented by translation theory, similar to Greimas' generative theory of semiotics. Finally, he proposed to us a mediated role between our own language and the pure language referring to the elementary structure of meaning in the Greimas' term. This study concludes that Benjamin's eminent thinking on the language can enlighten our eyes which enjailed in the prison house of language.

Keywords : Walter Benjamin, semio-linguistics, translation, postmodernism,
structural semiotics

투고일 : 2017. 02. 02. / 심사일 : 2017. 02. 27. / 심사완료일 : 2017. 03. 05

